

Chapter 9. 멕시코가 통치한 시기의 캘리포니아

300 년 동안 스페인이 지배하려고 애썼던 스페인 식민지들은 점차 반항적으로 변해갔다. 누적된 불만이 도화선이 되어 1808 년과 1820 년대 중반 사이에 혁명의 기운이 퍼져 나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거의 마지막까지 스페인에 충성하고 있었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나머지 라틴 아메리카를 휩쓴 혁명의 열정이 캘리포니아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때문이었다. 귀족 출신인 “솔라” 주지사는 수도 Monterey 에 앉아서, 남쪽에서 일어난 혁명들을 극단주의자들이 뭇 잘못 알고 일으킨 일들이라 여겼다. 비록 독립에는 반대했지만, “솔라”는 캘리포니아의 복지에 관심을 두었고, 정치를 능숙하게 잘 해나가고 있었다.

1808 년 이후에 캘리포니아 현지인들에게 물자를 공급할 만큼의 충분한 숫자의 배들이 “상블라스”에서 들어오지 않았을 때, 불만이 극심하게 되었다. 스페인 선박들에 대한 혁명군들의 공격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점점 더 적은 숫자의 개인 선박들만 태평양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중 몇은 미국에서 제작된 배들 이었다. 이들 해적들은 스페인의 식민지 해안들뿐 아니라, 수송로들에 까지도 위협을 주고 있었다. “발파라이소”, “카야오”, “구아야킬” 등 남미의 태평양쪽 항구들이 혁명가들이나 개인 선박들에 의해 봉쇄되었다는 소식이 너무 염려되어, “솔라” 주지사는 의심스런 선박들을 해안에서 더욱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캘리포니오”들이 뉴멕시코에 있는 총독에게, 충분한 물자가 공급되지 않고, 군인들 봉급도 전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솔라” 주지사나 총독의 권위에 도전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캘리포니오”들에게는 해적들이 더 큰 걱정거리였다.

1818 년 11 월에 Monterey 근처의 “포인트 피노스”에서 경비 보초가 두척의 수상한 배를 목격했다. 그중 큰 배인 “알젠티나”호는 새로 탄생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공화국” 해군에서 복무하기도 했던, 프랑스인 “히폴라이트 데 부샬드”가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는 덩치도 크고 무자비하고, 불같은 성격으로 선원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또 다른 배는 “산타로사”호 였고, “피터 코니”라는 영국인 용병이 지휘하고 있었다. “코니”는 페루와 에쿠아도르 교회들에서 약탈한 금으로 된 잔들, 은 십자가등을 팔고 있던 “부샬드”와 하와이에서 합쳤다. 두 배의 선원들중에는, 사기꾼, 도둑 같은 온갖 잡다한 사람들뿐 아니라, 혁명가들도 있었다. 말레이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 영국 사람들, 그리고 호주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 모두 해체되어 가고 있는 스페인 제국에서 한건 할려고 노리던 사람들이었다.

“산타로사”호는 Monterey 프레시디오 정면에 닿을 내리고는 포문을 열었다. 황폐한 요새에서 별 저항을 기대하지 않았던 “코니” 선장과 선원들은, 요새의 군인 40 명이 해안가에 급히 설치한 포대에서 활발하게 포탄으로 반격하는 것에 크게 놀랐다. 그때, “부샬드”가 “알젠티나”호로 달려와 상륙해서는 Monterey 의 즉각적인 항복을 요구했다.

비록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달리 저항할 수단은 없었지만, “솔라” 주지사는 “부샬드”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해적들 수백명과 상당한 전투 장비들이 “포인트 피노스” 근처에 내려졌다. 압도적인 숫자 때문에 “솔라” 주지사는 탄약과 문서들을 가지고, 현재의 “살리나스” 근처인 “란초 텔 레이”로 후퇴했고, Monterey 사람들은 피난을 갔다. 몇몇 사람들은 “상 안토니오” 밋션과 “상 보티스타” 밋션으로 피난을 갔는데, 침입자들은 Monterey 프레시디오와 마을을 약탈하고, 두곳 모두에 불을 질러, 상처를 입지않은 건물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파괴자들은 심지어, 밋션의 정원과 과수원들까지 파괴했다.

약탈을 하고 다닌 부하들의 행동에 대해 “코니”는 나중에, “처음에 상륙했을 때, 거의 벌거벗고 있던 샌드위치 섬놈들이, 곧 스페인식으로 옷을 입고는 집집마다 돈을 찾아 다녔고, 모조리 깨부시고 파괴했다”라고 기록했다. 침입자들은 죽은자들을 묻고, 다친자들을 간호하고, “산타로사”호를 수리하는 등 1 주일 이상을 머물렀다. 혁명가들은 또 푸에블로에서 용감하게 남아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애썼지만, 그런 선전은 분명히 자유를 고무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집이 약탈당해 버린 캘리포니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없었다.

식료품들을 가득 채운 후, “알젠티나”호와 “산타로사”호는 떠났고, “솔라” 주지사는 Monterey로 돌아왔다. 개인 선박들은 계속 마을들을 불태우며 남쪽으로 해안을 따라 내려갔다. 현지 “바케로”들이 3명의 해적들을 “랏소”로 잡아 끌고 다닌데 대한 보복으로 “란초 델 레푸기오”를 불태우기도 했으며, “산 후안 카피스트라노”에서는 와인 가게, 술 가게들을 약탈해서는 즉시 마셔버리기도 했다. 인디언 여자들을 배에 태운 후 마침내 남쪽으로 가서,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안도하게 되었다.

“부살드”에 의한 공격은 혁명가들의 남미 독립 전쟁들 와중에, 캘리포니아가 외부 세계 혁명가들과 접촉한 유일한 사건이었다. “부살드” 일당이 떠난 후 캘리포니아는 다시 조용한 삶을 이어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페인 식민지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1821년 2월, 멕시코에 주둔하고 있던 왕군 대령 “아구스틴 이틀비데”가 갑자기 반란군쪽으로 망명 해버렸다. 그는 혁명군의 깃발을 들었고, 그후, 언제나 “멕시코”라 불리게 되는 뉴스페인이 독립국임을 선언했다.

멕시코에서의 정치 권력이 장악되었다는 소식이 마침내 캘리포니아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으나, 1822년 4월 “솔라” 주지사가 프레시디오의 장교들과 밋션의 신부들을 소집한 “훈타(정치 집회)”를 열어, 새 정부에 충성을 서약했다. 몇명의 신부들과 수도사들은 좀 주저했는데, 그 이유는 멕시코의 왕정이 아닌 신정부에서는 밋션 체계가 쇠락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여튼, 모든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그때 새정부가 멕시코시티에서 권력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훈타”는 “솔라”를 새로운 멕시코의 “코르테스(의회)”에 파견할 대표로 선출했지만, “솔라” 전 주지사가 멕시코시티로 출발하기도 전에, Monterey에서의 권력이 스페인에서 멕시코로 이양되는 것을 감독하러 관리가 파견되어 왔다. 캘리포니아에 여전히 스페인 국왕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해서, 신정부에서 파견된 이 관리는 대담하게 녹색, 백색, 적색의 멕시코 국기를 단 배를 타고 Monterey에 도착했다. 멕시코의 상징인, 중앙에 그려져 있는 독수리는, 이 관리를 영접하려고 부두에 모여 있던 주민들에게, 캘리포니아에서 스페인의 주권이 끝났음을 확실하게 각인 시켜주었다.

“솔라”를 계승한 사람은 “루이스 안토니오 아르케요”인데, 그는 투표로 선출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다. 이후, 멕시코시티에서 일련의 주지사들을 임명했는데 그들중 몇명은 인기가 없었다. 앞 챕터에서 얘기한대로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던 “아르케요”는 멕시코 정부의 모든 행정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으며, 또 공식 문서의 “제국”이 어찌고 하던 말들을 전부 “국립” 어찌고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공적 또는 사적인 편지들도 끝을 “신과 자유”란 말로 맺게 되었다. 귀족을 말하는 “Don”이란 타이틀은 시민을 말하는 “시우다노”로 바뀌었다. 모든 스페인 직위들도 멕시코 공화국 정신을 살리도록 바뀌게 되었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캘리포니아는 운 좋게도 피를 흘리지 않고 멕시코의 일부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사적인 대립들까지 피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멕시코가 통치하던 전 시대를 통해서,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폭동없이 임기를 마친 주지사는 드물었다.

북부 캘리포니아 출신인 “아르케요” 주지사는 북부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저명한 남부 캘리포니아 사람인 “호세 엘 라 게라”를 주지사 선거에서 눌렀는데, 이후, 이슈는 바뀌지만, 북부와 남부의 대립은 오늘날까지 계속 되고 있다. “아르케요”는 자신의 “훈타”인 “디스퓨타시온(disputacion)”을 세웠는데, 자금이 너무 부족하여, 지역 농작물과 소들에 대해 유례 없는 세금을 부과했다. 신부들은 밋션에서 재배한 작물들에는 면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항의했지만, 이는 정부의 감시를 더 불러오는 계기가 될 뿐이었다. “아르케요” 시절에 밋션을 세속화하려는 직접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지만, 강력했던 밋션의 힘이 거의 소진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며, 또 멕시코시티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따르겠다는 캘리포니아의 의지도 그 종착역에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르케요” 주지사 시절에도 외국 상인들과 이주자들은 여전히 캘리포니아로 오고 있었는데, “아르케요”는 “레자노프”가 그의 딸에게 청혼한 이후로, 개인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에게 호의적이 되었다. 러시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바다 수달 사냥과 거래를 함께 하고 싶어했다. “아르케요” 주지사는 “포트

로스”와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 계약에 따라, “포트 로스”는 그에게 “알류트” 사냥꾼들을 제공하고,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알류트” 사냥꾼들에게 식량과 물자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변화하는 정치 환경에 따라, 밋서너리들은 차츰 주지사와 협력하기를 꺼리게 되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 신부들은, 오늘날 스캇치 위스키의 조달자인 영국회사 “존 벅 앤 캄퍼니”의 자회사인 “맥컬로 앤 하트넬” 회사와 협정을 맺었는데, 그 회사의 캘리포니아 대표들인 “휴 맥컬로”와 “윌리엄 하트넬”은 모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었고, 남미의 “리마”에서 1822 년에 캘리포니아로 왔던 사람들이었다. 캘리포니아 현지인들 사이에 “마칼라 이 아르넬”이라 알려졌던 두사람은 캘리포니아에 1 년에 한번 화물선을 가져오도록 허가를 받았다. 그들은 또 밋선이 팔려고 가지고 있던 모든 가죽을 1 개당 1 달러에, 그리고 양의 지방, 돼지기름, 소기름, 밀, 와인, 모피, 절인 소고기등도 가져갈수 있도록 허가를 얻었는데, 이는 캘리포니아가 번창하는 “소가죽과 소기름시대 (hide-and-tallow era)”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부들이 시작한 사업들을 정부가 쉽게 되돌려 받기는 어려웠고, “양키” 상인들은 그들이 1 년 내내 가져오는 상품들을 팔아 이익을 챙겼다. 몇몇 상인들은 아예 영구히 정착해 버렸는데, Nathan Spear, William Heath Davis Jr., John Cooper 와 Alfred Robinson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예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품들을 배위에서 뿐만아니라 땅위 에서도 나누어 주었고, 결국에는 비밀 장소에서 밀수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짐을 싣고 내릴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었다. “캘리포니오”들뿐 아니라, 관세를 걷던 멕시코 관리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남겼는데, 양키들은 멕시코 관리들을 피하는데는 전문가들이었다.

보스톤에 위치한 Bryant, Sturgis & Co 회사는 캘리포니아, 하와이, 중국 사이에 끊임없이 선박들을 운영하면서, 수십만개의 캘리포니아 가죽들을 뉴잉글랜드의 신발산업용으로 수입했다. 다른 보스톤 해운 회사들로는 William Appleton & Co 와 Marshall & Wildes 가 있었다. 그들 배들의 선창에는 실크 스타킹, 바늘, 담배등 수백가지 생활 용품들로 가득차 있었는데, 이 바다에 떠다니던 보급선들은 캘리포니아 내지의 판초들에게서 구입한 엄청난 양의 가죽들을 처리해냈다. 가죽들은 먼저 바닷물에 담겨지고, 이어서 땅위에 펼쳐져, 나무 막대기로 두들겨졌다. 그후, 말린 후에는 소금을 뿌려 두고 굵었다. 과도를 넘어 배에까지, 띄어져 운반된 후, 가죽들은 소기름을 담은 통들 옆에 저장되었다.

몇몇 양키 상인들은 “시골 아가씨들”과 결혼 한 후, 캘리포니아에서 가죽을 이루었다. 그중 하나인 John Cooper 는 1823 년에 미국 배 Rover 호를 타고 Monterey 에 왔다. Cooper 와 함께 Massachusetts 출신인 Daniel Hill, Thomas Robbins 도 왔는데, 그들 역시 Santa Barbara 에 정착했다. William Richardson 은 Yerba Buena 에서 지역 사령관 딸과 결혼했고, 카톨릭 세례를 받은 후, San Francisco 개발업자가 되었다. 이들 초기 미국인 정착자들은, 대평원을 넘어 육상으로 도착한 팀들 보다 훨씬 전에 이미 “캘리포니오”들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었던 것이다.

멕시코 통치 시대의 캘리포니아는 생활하기에 안전한 곳이었지만, 나중에는 인디언들이 스페인 통치시대에는 금지되었던 총기를 입수해 사용할줄 알게 됨에 따라, 1824 년 2 월에 Purisima Concepcion, Santa Ines, Santa Barbara 미션들의 신개종자들이 일련의 반란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경고 없이 공격을 당한 Santa Ines 미션의 군인들은 건물에 불을 지르는 잘 장비된 자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La Purisima 미션의 경비병들은 인디언 7 명과 백인 4 명이 죽은 후 항복했다. 지역 인디언들은 흠뻑으로 방벽을 쌓고, 교회벽에 구멍을 뚫고, 대포 2 개를 장전하고, 활과 화살뿐 아니라 총으로 싸우며 거의 한달 동안 미션을 방어했다. 총과 화약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못했던 인디언들은 Jose Mariano Estrada 중위와 100 명의 군대에 의해 격퇴되었다. Santa Barbara 에서는 불만을 가진 인디언들이 미션 건물에서 농성했는데, 사령관 de la Guerra 의 공격으로 여러 시간에 걸친 전투 끝에,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산으로 도망치게 되었다. 그후 Santa Barbara 에서 온 원정대가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도록 명령을 받게 되었다. 1825 년 중반, “아르게요” 주지사는 멕시코 정부에,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로 미션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아르케요” 아래에서 멕시코로 통치권이 이양되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고, 인민을 대표하는 정부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따분해 보이던 캘리포니아가 어쨌든 부모처럼 간섭하고 보수적이던 스페인 통치로 부터, 아직 불안정한 멕시코 통치로 넘어갔으며, 그 결과는 분파주의가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것었다.

“아르케요” 주지사의 후임 Jose Maria Echeandia 는 마르고, 키 크고, 활기 없고, 별 특징 없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약한 건강에 미칠 캘리포니아의 기후가 무척 염려가 되었다. Echeandia 는 처음에는 서늘한 Monterey 의 안개 낀 기후가 너무 무서워, San Diego 북쪽으로는 가지 않았다. 남부와 북부 캘리포니아 사이의 비즈니스를 위해 알타 캘리포니아의 제일 남쪽에 있는 타운이 캘리포니아 중앙 부분에 있었던게 그에게는 다행이었다. 심약한 Echeandia 가 받은 명령들중에 Monterey 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없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고른 도시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업무를 수행했다. 비록 수도가 공식적으로 옮겨지지 않았지만, 남부인들은 Echeandia 의 행동을 반겼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남부와 북부인들의 라이벌 의식을 더욱 부채질했기 때문에, 이 주지사는 처음부터 인기가 없었고, 특히 북부인들에게 그러했다.

1826 년에 Echeandia 와 Massachusetts 출신의 젊은 선장 Henry Delano Fitch 사이에, San Diego 에 사는 여성 Senorita Josefa Carillo 를 두고 경쟁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주지사가 남쪽에 머문 이유중에는 건강 문제뿐 아니라 로맨틱한 이유도 있었던 것 같다. 실제로 이 16 살짜리 아가씨를 잊지 못한 Echeandia 는 그녀가 Fitch 와 결혼하는 것을 중지시켰고, 당시 미국 범선 Maria Ester 호를 지휘하던 Fitch 선장은 칠레로 가서,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고생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참이었다. 그들이 Monterey 에 돌아오자, 주지사는 Fitch 선장에게 유괴 등 각종 죄를 뒤집어 씌워, 두 사람을 6 개월 이상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석방된 후, 둘은 San Diego 로 돌아가, 나중에 제 32 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Franklin Delano Roosevelt 의 선조가 될 자식을 포함해 10 명의 자식들을 키우고 살았다. 1840 년, 또 다른 멕시코 주지사가 Fitch 에게, 오늘날의 Healdsburg 근처에 있는 48,000 에이커에 달하는 Sotoyome Rancho 를 수여했다. 그 후, 저명한 “란체로”이자 상인이 된 Fitch 는 10 년뒤에 48 세의 나이로 죽었지만, Josefa 는 82 살이 된 1893 년까지 장수했다.

한편 Echeandia 주지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캘리포니아의, 보급을 받지 못한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보급품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또 북부의 두 정치적 라이벌들과도 경쟁해야 했다. 전과자 출신인 Joaquin Solis 와 정부의 재정 대리인으로 멕시코에서 파견된 Jose Maria Herrera 는 절망하고 있던 군인들과, 의심에 찬 신부들을 대표해서, 주지사의 인민들에 대한 독재적인 행동들을 고발하는 선언서 (pronunciamiento)를 발표했다. 1828 년, Solis 와 Herrera 는 몬테레이에서 시작해 산타바바라에까지 이어진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두 사람은 체포되어, “상블라스”로 이송되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멕시코 정부에 대한, 총보다 말로 싸운, 소규모 반란의 첫 시작이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캘리포니아로 보낸 멕시코 정부의 불행한 행동은, 캘리포니아 사람들과 멕시코 사람들 사이의 적대적인 감정과 많이 관련되어 있었다. Solis 의 반란이 진압되어 갈때, 멕시코 관리들은 80 명의 죄수들을 캘리포니아로 이송했다. 그들은 먹고 살수 있도록, 소 몇마리와 물고기 갈퀴 몇개를 가지고 Santa Cruz 섬에 내려졌다.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스스로 만든 뗏목을 타고 캘리포니아로 옮겨갔다. 1830 년 7 월에 또 50 명의 죄수들을 멕시코에서 신고와, 그들을 캘리포니아 곳곳에 배치했다. Echeandia 주지사는 그 일들로 비난을 받았고, 캘리포니아 disputacion 은 멕시코가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을 보내지 말것을 표결로 의결했다. 죄수들을 배로 캘리포니아로 보내는 것은 중단되었지만, 많은 죄수들이 여전히 캘리포니아로 군인들이 되어 보내졌는데, 이런 모욕적인 일들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1829 년, 예전에 San Jose 의 치안 판사였던 칠 Estanislao 휘하의 인디언들의 반란이 Echeandia 시대에 일어났다. Estanislao 와 일단의 분노한 반역자들은 숲속에 캠프를 차려 요새를 만들어두고 싸웠다. 머스캣총과 스윙블 대포로 무장한 주지사 휘하의 40 명의 군인들이 이들 인디언 반군들과 싸웠는데, 인디언들은 군인 2 명을 죽이고 8 명을 부상시켰고, 나머지 군인들은 탄약이 떨어지고, 너무 더워가

심해서, 포위를 풀고는 도망쳐 버렸다. 진압되지 않은 반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 한 Echeandia 는 캘리포니아 사령관 Mariano Guadalupe Vallejo 를 사령관으로 기병, 보병, 포병을 파견했다. 주위의 숲을 불 태운 후, 군대는 인디언들을 넓은 곳으로 나오게 했다. Estanislao 는 밋션의 프레지던트였던 Narciso Duran 신부에게로 도망쳤는데, Duran 신부는 주지사의 사면이 내려올 때까지 그를 숨겨주었다.

Echeandia 의 문제들이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주지사일 때, 외국 원정대들이 다시 들어닥치고 있었다. 1826 년 11 월 6 일, F.W. Beechey 가 지휘하는 영국 선박 Blossom 이 샌프란시스코로 들어 왔는데, Vancouver 처럼, 그 또한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자연과 멕시코가 내팽겨친 정착민들의 대조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예를 들어, 그는 모든 계층 사람들의 불만을 언급하면서, 멕시코가 영원히 캘리포니아를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또 많은 수도사들이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는 것을 봤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수도사들은 떠나버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몇몇 사람들은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들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문명세계와 단절되어 있어서, 그들의 생각과 정치적인 행동은 벽에 걸린 파리 똥 투성이 지도처럼 1772 년에서 정지되어 있다”라고 기록했다. Beechey 가 캘리포니아와 그 주민들에 대해 상세히 묘사한 것은 중요한 기록이고, 또 그의 선원들이 그런 캘리포니아 수채화는 놀랄 만한 것들 이었다.

1827 년 1 월 Auguste Bernard Du Haut-Cilly 가 지휘하는 프랑스 선박 Le Heros 가 캘리포니아에 왔다. 세밀한 관찰자이자 글 잘 쓰는 이 프랑스 사람은, 자신이 본 사람들과 동물들을 묘사한 저명한 이탈리아인 고고학자 Dr. Paolo Emilio Botta 와 함께 왔는데, 그들도 이전에 캘리포니아에 온 외국인 방문객들처럼 정부와 파워풀한 선교사들을 비난했다.

이 무렵, 여전히 참된 국가를 건설하려고 애쓰던 멕시코 관리들은 모든 밋션들을 civic pueblo 로 바꿀려고 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세속화 과정이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했다. 그 이유는, 우선 수도사들만이 밋션의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성직자들이 떠나 버리면 캘리포니아 내지의 인디언들은 더욱 많이 공격해 올 뿐 아니라, 갑자기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밋션화”된 인디언들은 일반적으로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에, 1831 년 1 월 6 일, Echeandia 주지사는 밋션 몇 군데를 세속화해 버렸다. 그 밋션들은 이제 civic pueblo 가 될 예정이었다. 수도사들의 역할이 단순한 성직자 역할만으로 바뀌자, 그들의 힘도 약화되어졌다. 교회와 정부가 더 이상 캘리포니아를 통치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이때부터 지역 시민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문제들을 압도하게 되었고, 멕시코 또한 그들의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인 캘리포니아에서의 통치권을 잃어 버릴려는 참이었다.